



## ‘낭만 여수’ 年 관광객 1500만 시대

18일 저물어가는 해를 배경으로 관광객을 태운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508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해양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한국 대표 해양관광지 우뚝...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차

여수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우뚝 서면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여수 박람회 개최를 기점으로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여수를 찾았고, 지난해에는 1500만명을 넘어 여수시에서 여수는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확고한 자리를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는 1508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1316만4000여명에 비해 1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간 관광객 수 15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하던 해인 1525만여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여수지역 관광콘텐츠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첫 해상케이블을 표방하며 2014

연도별 관광객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378,149	7,029,914	15,253,506	10,413,876	9,889,789	13,585,275	13,164,230	15,085,171

해상케이블카 3년간 610만여명 이용 ... 낭만버스 탑승률 98%

여수 밤바다·낭만 버스킹·낭만 포차 등 문화관광 콘텐츠 인기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 ... 외지 차량 급증 시민불편 등 부작용도

년 12월 운영을 시작한 여수 케이블카는 36개월 동안 610만8000여 명이 이용했다. 여수 낭만버스도 평균 탑승률 98%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여수가 국내 대표 해양관광지로 떠오른 데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후 잘 갖춰진 교통망과 인지도 상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년 결심 1호’ 금연 체험기 ▶7면

신발도유람·한라산 눈 트레킹 ▶18면

‘KIA V12’ 호랑이 체력 테스트 ▶20면

다. 여기에 ‘여수 밤바다’와 ‘낭만 버스킹 거리 공연’ ‘낭만 포차’ 등의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가 뒷받침해주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서대화와 돌산갯길, 장어탕, 간장게장 등 풍부한 남도의 먹거리도 관광객 유인에 효과적이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관광객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여수산단 등 정유화학 중심의 산업도시에서 해양관광까지 접목되면서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업소·음식점 등 신용카드 매출액은 하루 평균 5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한, 여행하기 좋은 계절과 휴가철, 공휴일이 많은 5월과 8월, 10월에는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지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법주차가 일상화되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일부 부작용은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올해는 관광활성화의 혜택이 전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관광객 대부분이 원도심에 몰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광거점을 시 외곽과 섬 중심으로 분산하기 위한 관광콘텐츠 다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행복’과 ‘활력’을 새해 시정화두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을 핵심 사자성어로 삼고 시민 행복을 위한 소통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3년 연속 1300만 관광객 달성 등 빛나는 도시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23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광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선언 ... 광주·전남 정가 ‘요동’ 기초단체장·광역의원 국민의당 집단탈당 움직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8일 통합선언을 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가도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6·4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현 국민의당 소속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통합 찬성과 반대파 잇달리면서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해당 지역구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졌다. 국회의원의 결정에 따라 통합에 불참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동반 탈당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이날 안 대표와 유 대표의 당 통합 발표에 따라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집단탈당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당 광주시·도당은 중앙당의 통합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통합절차에 따라 방침이지만 지역당 차원에서의 분당도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지만 통합이 구체화되고, 통합 반대파의 신당 창당 작업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지역 정가도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한 이번 통합 과정의 무리함을 문제삼

아 이에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려는 지역 정치인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안 대표 주도의 통합개혁신당이나 통합에 반대하는 측이 준비하는 신당의 옷을 입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경우에는 다소 심리적인 여유가 있지만 당의 색깔이 당락의 관건이 되는 기초단체장과 시·도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더욱 눈치싸움이 치열해졌다.

현재 광주는 5개 구정당 중 4명이 민주당, 1명이 국민의당 소속이다. 전남도 22개 단체장 중 14명이 민주당, 2명이 국민의당, 6명이 무소속이다. 광주시의회의는 민주당 12명, 국민의당 9명이었고 전남도의회의는 재직의원 58명 중 민주당 30명, 국민의당 24명이 포진해 있다.

국민의당 한 광역의원 의원은 “탈당 명분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번 통합 사태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와 대결하는 게 낫다고 여기는 지역 정치인들이 많아 ‘탈당 러쉬’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거론 MB에 분노

“정부에 대한 모욕 금도 벗어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류를 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현 정권의 충돌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날 ‘정치보복 성명서’를 강력하게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측근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측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전했다.

이미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굳이 현직 대통령과 추가적인 충돌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계열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 [무안공항 출발]

## 일본(기타큐슈, 시라하마, 돗토리), 다낭 직항 전세기

2018년의 시작을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쭈우욱~~~

**무안 ↔ 일본 기타큐슈(야마구치)**

주 3회 출발 / 화요일(3박4일) 금, 일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1:00)

**[특가상품(일요일 출발)]**  
북큐슈 특급호텔 1박+온천펜션 1박 **499,000원**~  
북큐슈(벳부, 후쿠오카, 기타큐슈)  
...[실속] **579,000원**~ [폭격] **749,000원**~  
야마구치(하기, 기타큐슈, 시모노세키)  
...[실속] **699,000원**~ [폭격] **769,000원**~  
**실 연휴 매일 출발합니다.[2/14(수)~2/20(화)]**  
[폭격] 북 큐 슈 **998,000원**~  
[폭격] 야마구치 **998,000원**~  
야마가세 온천별장 **699,000원**~

**무안 ↔ 시라하마(와카야마, 오사카)**

2018. 1. 5(금) ~ 1. 26(금)

주 3회 출발 / 일요일(3박4일) 수, 금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3:00) → 시라하마(14:40) / 시라하마(15:30) → 무안(17:10)

**[특가상품(수요일 출발)]** 와카야마, 오사카, 나라, 교토 **669,000원**~  
[폭 격] 오사카, 와카야마 **798,000원**~  
[고폭격] 오사카, 와카야마, 나라, 교토 **898,000원**~

**무안 ↔ 돗토리**

2018. 2. 15(목) ~ 3. 1(목)

주 3회 출발 / 토요일(3박4일) 화, 목요일(2박3일)

운항스케줄 무안(11:00) → 돗토리(12:20) / 돗토리(13:00) → 무안(14:20)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3일 [실속] **588,000원**~ [폭격] **678,000원**~  
돗토리(요나고, 마츠에, 이즈모) 4일 [실속] **768,000원**~ [폭격] **828,000원**~  
**실 연휴 단, 하루! [2/15(목)~2/17(토)]**  
[폭격] 돗토리, 요나고, 마츠에 3일 **1,098,000원**

**무안 ↔ 다낭·후에·호이안**

2018. 2. 2(금) ~ 5. 18(금)

주 2회 출발 / 매주 화, 금요일 출발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 요금은 순복합요금 기준

**[실속]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699,000원**~ / 3박5일(금) **799,000원**~  
**[노립·노옵션] 다낭·후에·호이안**  
3박4일(화) **869,000원**~ / 3박5일(금) **969,000원**~  
**[골프] 다낭 GOLF 54홀**  
3박4일(화) **1,199,000원**~ / 3박5일(금) **1,299,000원**~  
※ 다낭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회조건: 여행비(인기, 여행자보험 가입(해상보험: 1억원, 국내보험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차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보험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대표전화: **062-234-3222**  
**조이투어** F A X : **062-234-3141**  
JOY TOUR CO., LTD.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